

본문에서 발견하기

-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렇게 계획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12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 1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 우리는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까?

- 이방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 하나님은 믿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중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었습니까?
-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며 살고 있습니까?
-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1:8-10)

-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그 범위는 단순히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권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입니다.
-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은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가 전우주적일 것, 후에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 그 통일의 두 가지 양상은 한편으로는 화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굴복시키는 승리가 될 것,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화목된 존재가 되었던 아니면 그 힘에 의해서 눌러서 굴복해서 하게 되었던,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말입니다.
- 하나님의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꺾거나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됨심의 객관적 측면입니다. 주관적 측면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내면에 모시고 인정하고 그 주되심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굴복시킨 승리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 되신 주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